

금천구-서울문화재단 '예술공장' 개관식

서울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서울문화재단과 함께 7일 오후 3시 신개념 복합예술 창작공간인 '금천예술공장'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서남권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남산창작센터, 서교예술 실험센터에 이어 세 번째 창작공간이다.

현재 개인작가 9명, 그룹 5개팀이 입주작가로 선정됐다.

이날 개관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한인수 금천구청장을 비롯해 지역인사, 서울문화재단 관계자, 문화예술인, 주민 등 300여명이 모여 '금천예술공장'의 탄생을 축하할 예정이다.

'금천예술공장'은 1978년 전화기코일 공장, 1991년 인쇄공장으로 사용되던 공간으로 대지 2358㎡, 연면적 3070㎡의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3층, 부속창고 등 기존 인쇄공장 건물을 리모델링해 22개의 스튜디오, 2개의 공동작업실, 공연장 등을 갖췄다.

이곳에서는 일반 창작스튜디오와 달리 시각예술뿐 아니라 공연·실험예술과 글로컬(Glocal) 미학 등 연관 분야나 이론 분야에까지 폭을 넓혀 예술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도모해 새로운 프로젝트 실험들이 진행된다.

한인수 금천구청장은 "금천예술공장은 다양한 예술창작공간을 갖추고 있어 민간과 공공문화 인프라가 부족한 금천구 지역주민들의 예술 향유를 향한 갈증을 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2627-1446

남상욱 기자/kaka@heraldm.com

2009.10.06